

永湖 趙曦의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 二元的 文學世界 分析을 中心으로 —

이 성 형*

<目次>

- I. 緒論
- II. 通信使 正使로서 使命 遂行에 대한 所懷
- III. 知識人 旅行者로서 使行 體驗에 대한 所懷
- IV. 結論

<국문 초록>

본고는 永湖 趙曦(1719~1777)의 通信使 使行文學에 대한 二元的 文學世界를 분석하고 세부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通信使의 正使로서 使命 遂行에 대한 所懷로 먼저 永湖가 外交儀典에 대한 再認識과 國格의 正立을 위한 노력과 소회를 살펴보았다. 永湖는 외교의전에 대해서 ‘自侮의 방지와 國格의 정립’이라는 가치를 근간으로 사소한 외교의 전도 자세히 기록했고, 조선의 禁酒令을 준수하도록 일본의 宴享儀典을 변경했으며, 傳命儀式에 대한 비판과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에 대한 대처와 외교적 해결 과정에서 永湖는 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爭桑의 故事’를 상기하고, 외교적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범인인 鈴木傳藏의 처형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되었으면서도, 朝日 間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 안양 동안고등학교 교사 / great-one@hanmail.net

마지막으로 永湖가 譯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면, 永湖는 崔天宗 피살사건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외교에서 역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倭譯과 倭學의 쇠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知識人 旅行者로서 使行 體驗에 대한 所懷로 먼저 永湖가 朝鮮中華主意에 근거한 일본 인식과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永湖는 지식인 여행자로서 조선중화주의적 시각으로 일본의 풍습, 종교, 학문 등에 대해서 夷狄의 풍속이나 異端으로 규정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노정하였다. 다만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인식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永湖가 日本 文物에 대한 受容 意志와 客觀的 認識에서 永湖는 民生中心 愛民觀을 견지해서 조선의 백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도입의지를 보였고, 이는 고구마의 전파, 水車, 竹夫人樣子 등에 대한 수용 의지로 확인된다. 또한 일본의 변화한 도시나 정돈된 시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永湖가 일본의 風光을 遊覽하면서 抒情的 美感을 노정한 내용에서 永湖는 일본의 절경을 만나면 그 서정적 미감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하였고, 동료들과 적극적인 酬唱을 통해 壯遊의 興趣를 제고하였다. 또한 永湖는 일본과 조선 산수의 우열을 비교하며 鄉愁感을 노정하기도 했다.

【주제어】 永湖 趙曦, 通信使 使行文學, 傳命儀式, 崔天宗, 譯官, 朝鮮中華主義, 日本型華夷意識, 고구마, 壯遊

I. 緒論

본고는 永湖 趙曦(1719~1777)의 通信使 使行文學에 대한 二元的 文學 世界를 분석하고 세부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趙曦의 자는 明瑞이고, 호는 永湖이며, 본관은 豐壤이고, 鶴塘 趙尙綱(1681~1746)의 아들이다. 결단력이 있고 강직해서 정당한 일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품 때문에 ‘趙固執’이라 불렸으며, 文詞는 典雅하면서 기

교를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 잘 통하고 이론에 맞게만 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¹⁾

永湖는 蔭補로 內侍敎官이 되었다가 庭試文科를 거쳐 正言, 修撰, 東萊府使, 慶尙道 觀察使, 副提學, 吏曹 判書 등을 역임했다. 永湖는 애민 의식이 뛰어나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목민관이었는데, 동래부사로 있을 때에 對馬島[쓰시마]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했고, 倭館에서 역관들의 인삼밀매를 엄벌하기도 했다. 또한 경상도 관찰사 재직 시에는 백성들의 稅穀 수송 부담을 덜게 하여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釜山浦와 對馬島 상인들 간의 밀거래를 적발하여 엄벌한 적도 있었다.

또한 동래부사와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면서 壬辰倭亂 때 순절한 多大浦僉使 尹興信(?~1592)을 발굴하여 부산 忠烈祠에 追享케 했고, 東萊 梵魚寺 승려들이 잡역에서 벗어나 修道에 정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일화도 유명하다.²⁾ 특히 대일본 관련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癸未年(1763)에 通信使의 正使로 차정되기도 하였다.³⁾

永湖가 살았던 英祖代의 시대상황을 보면, 蕩平策으로 왕권이 신장되었고, 大同法과 均役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농업생산력과 商工業의 발달로 인해 사회계층이 분화 되면서 ‘庶孽許通’이나 ‘通淸運動’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委巷人들의 문예활동도 왕성하였다. 또한 實學이 발생하여 經世致用이나 利用厚生을 강조하였고, 實學者들에 의해 西學과 서양문물이 수용되었으며, 天主教가 종교 신앙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⁴⁾

다만 永湖의 통신사행 무렵의 조선은 심한 흉년에 시달렸다.⁵⁾ 이 때

1) 오영교, 「영호 조엄의 생애와 사상」, 『趙曦研究論叢』, 2004, p.27 참조.

2) 김재승, 「조엄의 고구마 전파와 재배법 연구자」, 『趙曦研究論叢』, 2004, p.74 참조.

3) 조선 후기 통신사행에서 癸未年의 通信使行은 1643년과 1763년에 이루어졌는데, 본고는 永湖의 통신사행과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癸未通信使行은 1763년의 통신사행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겠다.

4)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97, pp.319-356 참조.

문에 英祖는 전국에 禁酒令을 내려 엄격히 시행했다.⁶⁾ 또한 통신사에 대한 支供의 범절을 간소화 하고, 員役의 私人 동행을 금했으며, 夫馬의 동원도 간략화 했다.⁷⁾

당시 조선과 일본의 상호인식을 살펴보면, 조선은 中華였던 明이 멸망한 뒤에 小中華였던 조선이 순정한 성리학적 禮樂文物을 보존한 유일한 문명국이 되었다는 인식인 ‘朝鮮中華主義’를 정착시켰는데, ‘조선중화주의’의 성립은 오랑캐에 대한 적대감과 조선 문화에 대한 극단적 우월감으로 형성되었다.⁸⁾ 조선의 일본 인식은 ‘조선중화주의’를 근간으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린을 모색했다.

반면 일본의 江戸幕府[에도 바쿠후]는 ‘武威’와 ‘天皇’의 존재를 바탕으로 ‘日本型華夷意識’를 정착시켰고, 異民族과 異文化에 대해 조소와 멸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는 1709년 6월부터 神井白石[이라이 하쿠세키, 1657~1725]에 의해 추진된 ‘通信使 聘禮改定’의 본의가 幕府[바쿠후]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조선을 일본보다 하위에 두려했던 것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당시 일본의 관리와 지식인은 조선의 통신사를 朝聘使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⁹⁾

5) 1757년 2월에 흉년으로 漢陽의 飢民이 8700명에 달했고, 1761년 5월에는 還穀 1만석을 동원해서 京畿와 三南 일대의 飢民을 구제하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1763년 3월에는 湖南의 飢民이 48만여 명에, 餓死者도 450여 명이나 되었다.(오영교, 「영호 조엄의 생애와 사상」, 『趙曠研究論叢』, 2004, pp.29-30 참조)

6) 英祖는 재위 기간인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3년간 금주령을 실시했지만, 1755에 큰 흉년이 들면서 9월 8일에 어명을 내려 모든 제사에 醴酒를 사용하고, 금주령을 위반한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종묘 제례에서도 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금주령을 위반한 관리를 참형에 처했으며. 향의하는 신하는 파직을 시켰을 정도로 엄격한 금주령을 시행했다.

7) 趙曠, 『海槎日記』 권1, ‘癸未年 8月 10日(甲午)’.

8) 정은영, 「조선 후기 通信使와 朝鮮中華主義」, 『국제어문』 제46집, 2009, pp.355-356 참조.

9) 南玉, 『日觀記』 권8, ‘甲申年 2月 16日(戊戌)’, “以使館護衛, 圖藏懷中, 索見之, 則似有難色. 強之乃出, 有朝鮮人來朝字.”

결국 조선은 ‘조선중화주의’를 바탕으로 일본을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일본은 ‘일본형화이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통신사행을 ‘朝聘’이나 ‘入貢’으로 인식하였으니, 표면적으로는 우호관계였으나 내면적으로는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이다.¹⁰⁾

조선후기에 11번째로 파견된 계미통신사는 일본의 源家治[이에하루, 1737~1786]가 새로이 關白[칸바쿠]을¹¹⁾ 承襲하여 조선에 舊好를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파견되었다. 원래 출발 1년 전에 保晚齋 徐命膺(1716~1787), 趙璘(?~?), 李得培(1715~1774)를 三使로 선발했지만, 保晚齋가 蘭齋 曹命采(1700~1764)를 배척한 죄로 함경도 鏡城으로 유배되어 鄭尙淳(1723~1786)으로 교체되었고, 鄭尙淳도 통신사행을 거부하면서 金海로 유배되었다. 결국 통신사행 출발 20일 전에 갑자기 永湖 趙曦, 廻溪 李仁培(1716~1774), 弦菴 金相瑛(1721~1781)을 三使로 변경하게 되면서 子弟軍官 외의 기타 員役은 기존에 선발된 인원으로 통신사행단이 편성되었다.

당시 통신사행의 규모는 三使를 포함하여 477명으로 구성되었고,¹²⁾ 8월 3일에 漢陽을 출발하여 이듬해 2월 27일에 江戶[에도]에 國書를 전달한 뒤에 7월 7일에 漢陽에 다시 도착하기까지 332일이 소요되었으며, 水路와 陸路를 합하여 총 1만 1천여 리의 노정을 왕환하였다.

계미통신사행 기간 중에 외교상의 의전문제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여러 사건과 사고가 이어졌다.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對馬島 大浦[오우라]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던 卜船將 俞進元(?~1763)이 후유증으로 사망

10)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景仁文化社, 2006, pp.216-235 참조.

11) 關白은 倭皇의 文臣과 관련된 직책명이고, 원래 征夷大將軍[세이이타이쇼우군]이 정식 명칭인데, 조선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關白과 將軍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永湖의 통신사행록에서 사용하는 關白으로 사용했다.

12) 당시 사행단의 인원수에 대해서 연구자에 따라 477명, 483명, 486명 등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永湖가 ‘三使一行錄’에서 제시한 인원수를 근거로 했다.

했고, 藍島[아이노시마]에서 二騎船이 침수되었으며, 大坂[오사카]에 체류 중이던 三房首譯通引 金漢仲(?~1763)이 本病으로 병사했다. 回程 중에 大坂에서는 都訓導 崔天宗(?~1764)이 피살되었고, 格軍 李光夏(?~1764)는 狂症으로 자해했던 상처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아울러 一騎船과 二騎船의 鷗木이 파손되거나 三騎船이 짙은 안개로 표류하는 등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¹³⁾

永湖의 통신사행록은 保晚齋가 『海行摠載』를 翻謄한 『息波錄』을 참고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永湖가 직접 견문한 내용과 소견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¹⁴⁾ 『海槎日記, 酬唱錄, 各處書契, 與彼人往復文字, 狀啓, 筵話, 祭文』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통신사행 중의 여러 사건과 일화, 이에 대한 永湖의 소회, 관련 문건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특히 전대의 통신사행록과 중복되거나 비슷하게 반복되는 사건은 생략하였으며, 새로운 경험은 그 사실과 함께 자신의 소회나 평가를 첨부하고 있어서 永湖의 문학성도 충실히 반영되었다. 흔히 통신사행록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永湖의 통신사행록을 지칭한다.

현재 통신사행록에 대한 연구와 기록물의 수집에 많은 성과가 축적된 상태로 2008년에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 총서』가 13권으로 정리되어 印刷되었고, 국내와 외국에 산재한 통신사 필담창화집 180여 종이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과 총서 인간 작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31일에는 민간단체인 한국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 등 조선통신사 기록물 111건, 333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식 등재 되었다.¹⁵⁾

13) 안대수, 「계미통신사의 사건·사고의 진상과 실록체 소설의 창작 동기」, 『日語日文學研究』 제79집, 2011, pp.185-186.

14) 趙曦, 『海槎日記』 권1, ‘癸未年 10月 6日(己丑)’.

15)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200여년간 이어진 한일 교류의 상징(송고시간 2017.10.31.)” 한국의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63

통신사행록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계미통신사행과 관련된 조선의 통신사행록이 14종이고, 일본의 창수록도 43종이나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그중에서 永湖의 통신사행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永湖의 통신사행록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¹⁶⁾ 永湖의 통신사행록에 대해서 공적인 기록으로서의 성격이나 永湖의 대일본 인식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찰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永湖의 통신사행록에 대해 특정한 주제나 사건을 중심으로 다른 통신사행록이나 문집의 내용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 선행연구가 있는데,¹⁷⁾ 주로 다른 통신사행록과의 비교 연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연구의 주제는 글쓰기 방식, 실학정신, 崔天宗 피살사건 등을 중심으로 고찰이 이루어졌다. 원래 永湖의 통신사행록 외에 遺稿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유고는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永湖의 통신사행록과 다른 문인의 저작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永湖의 사상이나 문학성을 도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실 많은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永湖의 통신사행록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해 보면, 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심화된 비교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永湖의 문학적 소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의외로 미흡한 편이다. 또한 永湖의 自意識이 잘 반영된 酬唱詩의 분석을 통해서 永湖의 대일본 인식의 기저에 대해 고찰한 연구도 미흡한 편이다. 특히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가 朝日

건, 124점이고,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48건, 209점이 포함됐다.

16) 대표적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순, 「18세기 후반 조선통신사의 일본인식」, 『동방고전문학연구』, 학산 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총, 1990; 김의환, 「조엄이 본 18세기 후반기의 일본사회와 조일관계」, 『韓國學論叢』, 玄岩申國柱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編, 1985; 정영문, 「朝鮮時代 對日使行文學 研究」,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5; 구지현, 「癸未(1763)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7) 본고는 2장과 3장의 세부 주제 관련된 선행연구를 먼저 고찰하고 텍스트 분석을 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의 제시를 생략하겠다.

間의 교류에 관심이 높다보니, 통신사행에서 문학을 담당하거나 일본 문사와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던 서기, 제술관, 역관에 대한 연구에서 永湖의 통신사행록이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정도로 고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 永湖의 통신사행록에 대하여 좀 더 문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비교 연구에서 미흡했던 永湖의 대일본 인식의 기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永湖의 통신사행록은 다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거나 미흡한 논의를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試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도 새로운 자료의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본론에서 선행연구의 성과를 사행 문학의 이원적 특징을 반영하여 범주화하고, 주요 선행연구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병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저본은 『국역 행행총재』Ⅶ 및 ‘한국고전종합DB’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해석은 이를 인용하되, 오역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필자가 수정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한국고전종합DB에서 원문을 검색할 수 있는 원전은 기본 출전 정보만 각주로 제시하겠다.

Ⅱ. 通信使 正使로서 使命 遂行에 대한 所懷

通信使 使行文學은 紀行文學의 한 영역이며, 사명 수행과 통신사행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표현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⁸⁾ 기행문학의 연구는 대체로 여정에 따른 서사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특징적인 작가의식이나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使行的 경우 장거리를

18) 이성형,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2010, pp.1-2 참조.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여행이고, 여행의 목적이 명확하다. 또한 지정된 노정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대의 사행 경험이 누적된 노정을 이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행문학의 경우 여정의 체험에 따른 작가의식의 노정 양상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특정한 장소나 사건에 대한 표상성이나 서정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상술했듯이 재미통신사행에서 日供이나 禁酒令에 따른 의전 문제, 崔天宗의 피살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마다 永湖는 정사로서 先例나 양국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각종 사안을 적절하게 處決하였다. 永湖의 통신사행록이 대체로 외교관계의 절차, 정보 수집, 정세 분석에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은¹⁹⁾ 永湖가 통신사의 정사였기 때문에 통신사행록도 기본적으로 공적 글쓰기가 근간을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永湖의 공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통신사의 정사로서 사명 수행 과정에서 永湖가 노정한 소회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儀典에 대한 再認識과 國格의 正立

외교는 상대국과의 우의증진이나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활동이다. 특히 “외교는 의전이다(Diplomacy is protocol).”란 말이 있듯이,²⁰⁾ 외교의전은 외교 상대국 간의 국격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기 때문에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통신사행에서의 외교의전에 대한 永湖의 인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배수영,²¹⁾ 정은영,²²⁾ 정영문,²³⁾ 김보경,²⁴⁾ 구지현²⁵⁾ 등의 연

19) 신명숙, 『『日東壯遊歌』에 대한 비판적 성찰』, 『韓民族語文學』 제59집, 2009, p.67.

20) 하우봉, 「조선시대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朝鮮時代史學報』 58, 2011, p.67.

21) 배수영은 倭皇과 關白의 二元的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이 大義名分에 의거해서 倭皇과 평등한 의전을 나눠야 되며, 이는 일본 정세의 향배를 정확히 예견한 탁견이었다고 분석했다.(裴修伶, 「趙曦의 『海槎日

구가 주목된다. 선행연구에서 永湖의 외교의전과 관련된 관심은 주로 傳命儀式에서 보여준 倭皇과 關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永湖가 倭皇과 關白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근거로, 倭皇이 권력을 회복할 것을 대비해서 외교의전의 변경을 강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永湖와 다른 원역과의 외교의전에 대한 인식 비교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재미통신사행이 기존 외교의전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본장에서는 정사로서 본연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의전에 대한 永湖의 인식과 소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미통신사행에서 永湖는 일본 문사와의 교류는 자제하고 외교의전에 집중하여 국격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²⁷⁾ 특히 永湖의 통신사행록

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pp.30-39 참조)

- 22) 정은영은 조선후기 통신사의 倭皇 인식을 고찰하고, 永湖가 西京尹의 언급을 근거로 민심의 향배가 倭皇에게 있음을 간파했다고 분석해서, 교린외교의 의전 대상을 고찰했다.(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담론』, 경진출판, 2015, pp.134-155 참조)
- 23) 정영문은 永湖가 誠信, 禮義, 體例를 중시했는데, 특히 江戶에서의 聘禮와 國書의 격식, 關白의 禮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정영문, 「朝鮮時代 對日使行文學 研究」,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220-223 참조)
- 24) 김보경은 전명의식 과정의 갈등을 통해서 關白, 四拜禮, 回答書의 내용에 대한 永湖의 부정적 인식을 고찰하였다.(김보경, 「재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漢文學報』 제20집, 2009, pp.120-126 참조)
- 25) 구지현은 永湖와 退石 金仁謙(1707~1772)의 외교의전에 대한 인식을 비교했는데, 永湖의 전명의식에 대한 비판과 정세분석이 退石의 인식에 비하여 냉정한 판단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구지현, 「癸未(1763)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pp.36-37 참조)
- 26) 통신사행의 외교의전 문제는 對馬島의 국서 조작 사건인 柳川一件[야나가와 잇켄]과 관련된 丙子(1636)通信使行의 의전, 神井白石의 통신사 빙례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辛卯(1711)通信使行의 의전, 對馬島에서 거행된 易地通信과 관련해서 辛未(1811)通信使行의 의전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 27) 당시 제술관인 秋月 南玉(1722~1770), 서기인 退石, 龍淵 成大中(1732~1812), 玄川 元重擧(1719~1790), 그리고 역관인 松穆館 李彥璜(1740~1766) 등은 일

에는 외교의전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례를 적극 참고하여 결례가 없고 국격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현안을 결정하거나 해결하려고 고심하였고, 그 경위와 소회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永湖가 통신사행록을 서술하면서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했지만, 禮單의 分給이나 日供, 宴享이나 傳命儀式 등 의전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히 서술한 것은 외교의전을 중시한 永湖의 태도와 책임감을 잘 보여준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수역관이 와서 말하기를, “제작년 信行節目을 講定할 때부터 執政·宗室에 대한 일을 가지고 서로 우기고 결정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석에서 아뢰어 公禮單을 갖추어 왔는데, 바다를 건넌 뒤부터는 줄곧 저들과 논쟁했으며, 이제는 傳命할 기일이 박두하였습니다.” … 이제 무진년에 예단을 나눠 준 발기를 상고하였더니, 줄인 사람으로는 집정 한 사람, 近侍 한 사람, 執事 세 사람이고, 늘린 사람으로는 도주의 가까운 겨레 두 사람이었다. 각처에 보낼 예물을 전례에 비추어 單子를 쓰는데, 私禮單의 元數로서 부족한 것은 人蔘 2근 반, 豹皮 7~8장, 黑麻布 20여 필, 魚皮 60여 장이었다. … 이는 실로 전후에 온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는 마치 관청 돼지 배알이를 보듯 하여 뒤에 올 사람을 깨우쳐 주지 않고, 謄錄해 놓은 것 또한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⁸⁾

인용문을 살펴보면 예단의 分給과정에서 무진년(1748)의 기록을 적극 참고하면서, 선행 사신들이 후행 사신들에 대한 인수인계에 무관심함과 상세하지 못한 등록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의 사례 이외에 永湖의 통신사행록 여러 곳에서 日供의 증감 같은 세세한 의

본 문사와의 시문수창이나 필담을 담당하여 조선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했다. 永湖는 조선의 員役과 여러 차례 한시의 수창이 있었던 점을 보면, 永湖는 자신의 공적 직분에 충실하게 ‘人臣無外交’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일본 관리나 문사와의 실무적인 교류 이외에는 문학적 교류는 의도적으로 사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은 이혜순도 지적한 바 있다.(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40 참조)

28) 趙曦, 『海槎日記』 권4, ‘甲申年 2月 24日(丙午)’.

전 상황의 시행과정을 자세히 서술한 내용도 산견된다. 이는 永湖가 선대 통신사행록을 외교의전의 判例처럼 활용했듯이 자신의 사례가 후대 사신에게 똑같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노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교의전이 비록 사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대 사신에게 선례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며, 禮數를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외교적 결례는 결국 국격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永湖는 江戶에서 回程하면서 “사방에 사신가는 사람들 말 들어 보소, 自侮 행동 없어야만 國威가 행해지네.”²⁹⁾라고 노래하여, 사신의 自侮는 國格의 손상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永湖는 ‘自侮의 방지’와 ‘國格의 정립’을 외교의전의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은 흉년으로 인해 禁酒令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사절에게 베푸는 宴享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전의 조정이 필요했다.

내가, “저번 對馬島에 있을 때 이미 술을 사절한다는 글을 냈는데, 다시 무슨 사신의 글을 기다리는가? 우리나라의 酒禁은 지극히 엄하므로 조선의 신하로서 오직 감히 입에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히 술잔을 들지도 못한다. 이는 의리에 관계된 것이니, 關白이 만약 술을 권하더라도 결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도주는 불화한 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차라리 잘 주선하여 애당초 갈등이 없게 하는 것만 못하다. 나는 이미 정해진 계획이 있으니, 다시 글을 쓸 필요가 없다.” 하였더니, 수역이 이런 사연을 써 보냈다. 마주의 奉行들이 이 말을 듣고, 마땅히 힘을 다하여 주선하겠다고 하였다 한다.³⁰⁾

永湖는 對馬島에서부터 금주령을 엄격히 준수했기 때문에, 渡日한 이래로 각 站에서 베풀어준 연향에서 술 대신 차로 대체했다. 그리고 關白의 연향 절차에서도 술을 금하도록 의전의 변경을 요청했는데, 일본의

29)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 ‘自江戶回程得成字’.

30) 趙曦, 『海槎日記』 권4, ‘甲申年 2月 17日(己亥)’.

執政들은 關白이 술을 주면 술잔을 들어야 되는 의전은 변경하기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永湖는 거둬 조선의 國禁을 근거로 의전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關白의 공식 연회에서의 의전은 國格과 관련된 것으로 상당히 민감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에서 무진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의전을 진행하되, 永湖의 주장을 수용하여 빈 술병으로 술을 따르는 시늉을 하면, 빈 술잔을 드는 것으로 의전을 개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¹⁾

永湖는 외교의전 중에서 關白에게 배례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관례로 정착되어 변경을 요청하지는 못했지만, 의전 대상의 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江戶에서 御命을 전달하면서」

匪辟匪臣作威福
不知關白是何官
親傳御札心如碎
追憶辰年淚欲瀾
萊市蓼椒徒日易
喬陵松栢尙春寒
和戎本自非王意
一部麟書乙夜看

임금도 신하도 아닌데 위엄과 복을 만드니
關白이란 도대체 어떠한 벼슬인지 모르겠네
어찰을 전할 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임진년을 추억하니 눈물이 쏟아지네
東萊 시장 蓼椒는 부질없는 貿易이라
교룡의 송·백은 봄이 아직 차가운 걸
和戎이 본래부터 尊王의 뜻이 아닐진대
한 질의 『春秋』를 밤 깊도록 읽노라³²⁾

인용시는 永湖가 江戶에서 國書를 전달하는 의전에 참여한 뒤에 그 소회를 표현한 것이다. 수련에서는 關白은 예법에 없는 직책인데, 국왕의 실직을 수행하며, 국왕으로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노정하였다. 頷聯에서는 관례상 關白에게 국서를 전달하지만, 壬辰倭亂을 일으킨

31) 趙曦, 『海槎日記』 권4, ‘甲申年 2月 26日(戊申).

32)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 ‘江戶傳命.’

豐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 1536~1598]도 역시 關白이었음을 회상하니 憤淚를 떨구게 된다고 적개심을 드러냈다.

頸聯에서는 東萊의 倭館에서 朝日 間에 舊怨을 잊은 듯 人蔘과 胡椒를 무역하고 있지만, 임진왜란 시에 成宗과 中宗의 王陵이 왜적에게 도굴 당했던 치욕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春秋』에 尊王攘夷를 언급했기에 和戎은 『春秋』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표현하여 일본에 대한 舊怨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永湖는 대체로 일본에 대해 포용과 화친의 대상으로 인식했지만, 이 작품처럼 關白에 대해 배례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한 거부감과 우려를 노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永湖는 傳命 다음날의 일기에서 “간혹 국왕이라고도 일컫다가 吉宗[요시무네, 1684~1751]에서부터는 日本大君으로 고쳐 일컬었으니, 이는 바로 임금도 신하도 아닌 名號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부득이해서 교린 한다면 倭皇과 동등한 교제를 해야 옳다. 임금도 신하도 아닌 關白과 그 禮義를 동등히 하는 것은 더욱 수치스럽고 분한 일이다.”³³⁾라고 하여 배례의 대상은 關白이 아니라 倭皇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永湖는 關白이 실권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위상 倭皇의 신하이기 때문에 朝日 間 동등한 교린의 예는 倭皇에게 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선의 국왕을 대신하는 통신사가 關白에게 교린의 예를 표할 경우 일본의 국격이 조선보다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永湖는 倭皇의 世系나 倭皇에 대한 大坂 백성들의 추향을 근거로 倭皇이 언제든지 실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永湖가 외교의전을 재인식하고 관습화된 외교의전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노정하는 것은 조선을 대표하는 통신사의 정사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33) 趙曦, 『海槎日記』 권4, ‘甲申年 2月 27日(己酉)’.
www.kci.go.kr

수 있겠다.

2. 崔天宗 被殺事件의 對處와 外交的 解決

永湖는 江戶에서 國書를 무사히 전달하고, 關白의 答書를 받아 回程하던 노정에서 4월 7일에 大坂에 도착했다. 그런데 새벽에 都訓導 崔天宗이 피살되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永湖는 회정을 멈추고 5월 5일까지 大坂에 머물면서, 범인의 색출, 진상의 규명, 범인 및 관련자의 엄벌 등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통신사행록에 자세히 기록했다.

계미통신사행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崔天宗 피살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永湖의 기록 외에 여러 관련 기록이 현전한다. 이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는데, 크게 崔天宗 피살사건의 서술을 비교 분석한 연구와 崔天宗 피살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연극이나 소설 등에 대한 연구로 대별된다.³⁴⁾ 다만 연극이나 소설 등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창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永湖의 통신사행록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겠다.

崔天宗 피살사건에 대한 서술을 비교한 대표적 연구로는 이현주,³⁵⁾

34) 崔天宗 피살사건을 모티브로한 소설에 대해서는 안대수가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崔天宗 피살사건을 소재로 한 實錄體小說을 鈴木傳藏[스즈키 덴죠, ?~1764]의 출신과 출생에 관한 기술을 토대로 「和漢拾遺」 계열 실록과 「朝鮮人難波의夢」 계열 실록으로 구분하여 개론, 판본의 비교, 소설의 주요 내용, 講談 速記本の 소재로 범주화 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安代洙, 「崔天宗 殺害事件을 소재로 한 實錄體小說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3) 2014년에는 「實歷奇聞 「唐人殺」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였다.

35) 이현주는 永湖가 명확한 정보와 이성적인 태도로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일본 측의 조사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崔天宗의 피살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계술관, 서기와 상이한 서술방식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李旼周, 「1763년 癸未通信使 使行文學의 서술방식 비교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pp.31-42 참조)

구지현³⁶⁾, 배수영,³⁷⁾ 민덕기³⁸⁾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기타 이홍식과³⁹⁾ 김문경은⁴⁰⁾ 崔天宗 피살사건에 대한 永湖의 통신사행록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崔天宗 피살사건의 진상과 그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永湖의 통신사행록과 여타 자료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방식을 보였고, 崔天宗 피살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모했음에 규명하였다. 다만 永湖의 崔天宗 피살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한 고찰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한 이유와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崔天宗 피살사건은 永湖의 통신사행록에서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36) 구지현은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에서 냉정한 판단력을 견지하고 사건의 해결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는 했다고 평가했다.(구지현, 「癸未(1763)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pp.36-38 참조)

37) 배수영은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객관적, 긍정적 인식이 불신감으로 바뀌었지만, 양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裴修伶, 「趙顯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pp.64-76 참조)

38) 민덕기는 永湖가 對馬島 측의 崔天宗 피살사건 해결에 대한 비협조로 對馬島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지만, 朝日 간 외교의 중개자 역할을 對馬島의 처지를 배려해서 보호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고 분석했다.(민덕기, 「崔天宗 살해사건으로 본 18세기 중반 통신사의 對馬島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제21집, 2004, pp.3-11 참조)

39) 이홍식은 제술관과 서기의 통신사행록 및 對馬島의 『宗家記錄』을 비교 고찰해서 崔天宗 피살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의 의문점과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했다.(이홍식, 「1763 계미통신사행과 한일 관계의 변화 탐색」,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9집, 2011, pp.106-112 참조)

40) 김문경은 大典[다이텐]의 『萍遇錄』에 대한 해제에서 大典이 崔天宗 피살사건의 기록한 「書鈴木傳藏事」의 저술 과정과 崔天宗 피살사건의 진상은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인삼 밀매 과정에서 여러 갈등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했다.(다이텐 지음, 진재교·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 지식인 조선을 엿보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pp.48-60 참조)

많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永湖가 사안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판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崔天宗을 살해한 범인은 對馬島 傳語官인 鈴木傳藏으로, 崔天宗이 잃어버린 거울을 찾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도둑질을 잘한다고 욕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에 崔天宗이 傳藏을 말채찍으로 심하게 때렸다. 이에 傳藏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새벽에 관소에 잠입하여 崔天宗을 살해했다는 것이 永湖가 파악한 범행의 동기였다.⁴¹⁾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永湖는 崔天宗의 유언, 범행 현장의 일본제 흉기, 범인에게 발을 밝힌 姜文右(?~?) 등의 목격담 및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對馬島人 중에 범인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다만 사안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해결책을 강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각하면, 판성인은 우리 사행과 본래 怨憾이 없지만, 마주인은 우리와 사소한 말썽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마주인을 의심할 만한 첫째 이유요, 관중의 守直은 판성인도 섞여 있기는 하지만 마주인이 대다수인데, 판성인은 바깥 파수를 맡았을 뿐이며 마주인은 下處·房廳 사이를 무상 출입하였으니, 이것이 의심할 만한 둘째 이유이며, 변괴 이후에 판성인은 놀라 조사하려는 생각이 현저하게 있었으나, 마주인은 매사를 질질 끌고 놀라는 기색 또한 있지 않았으니, 이것이 의심할 만한 셋째 이유이다. 이 밖에도 들어 말할 수 있는 꼬투리는 많아 분명 마주인의 소행인 듯하다. 옥사의 실정이 설사 천만 뜻밖에서 나오더라도 이 일만은 다른 가닥이 없을 것 같았다.

생각건대, 국경의 분쟁이 두 여자의 爭鬪에서도 있었는데, 이번 변고는 어찌 뽕 다툼에 비길 뿐이겠는가?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하여 두 나라 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이는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다. 혹자는 직접 마주인을 들어 논하였지만, 이는 사태를 자세히 알지 못한 논의다. 내 생각으로는, 마주인을 잘 타일러서 마주인으로 하여금 범인을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요, 다음 계책으로는 판성인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⁴²⁾

41) 趙曦, 『海槎日記』, “狀啓”.

永湖는 對馬島人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3가지의 혐의점을 제시하면서, 의외의 변수가 있다고 해도 對馬島人이 범인임은 분명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永湖가 吳와 楚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던 여인들이 뽕잎을 두고 다투다 양국 간의 전쟁이 발발했던 ‘爭桑의 故事’를 상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崔天宗 피살사건을 접근하는 永湖의 근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사건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永湖의 태도를 이해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조선 원역들 사이에서 對馬島人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점증되어 가던 상황에서, 永湖는 조선이 범인을 직접 적발하는 방식을 반대하고, 對馬島人이 자발적으로 범인을 적발하거나 大坂城人이 범인을 적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교적 분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해법의 표명인 것이다.

기실 외교에서는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경우에 진상의 규명보다 명분에 적절한 선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국교 재개를 위해 조선에 압송한 ‘犯陵賊’이 진범이 아님을 인지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사례와 유사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신사행의 근본 목적은 일본과의 교린을 통한 ‘備倭’에 있었기 때문에,⁴³⁾ 일본과의 분쟁을 초래하면서까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색출과 엄벌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한 해법의 제시인 것이다.

永湖의 판단은 범인의 적발과 처벌을 일본이 주도해서 처리하도록 요구해서 사건은 적절히 해결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통신사행이 誠信交隣을 지향하는 외교활동이기 때문에 외교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로 사행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

42)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 4月 10日(辛卯)’.

43) 조선의 대일외교에서 ‘備倭’의 목적, 의의 등에 대한 고찰은 정은영이 자세하게 고찰하였다.(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담론』, 경진출판, 2015, pp.172-185)

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英祖는 만약 崔天宗이 무사 귀국했다면 먼저 말다툼을惹起한 점에 대해 엄벌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볼 때,⁴⁴⁾ 永湖는 사행의 목적과 英祖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永湖는 동래부사,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조선이 對馬島와의 교역에 10배나 많은 지출을 하면서 화친을 유지하는 회유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숙지하고 있었다.⁴⁵⁾ 또한 對馬島가 통신사행의 護行과 朝日 間의 交隣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對馬島에 대해 지나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외교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⁴⁶⁾ 이는 永湖 일행이 4월 20일 이후로 崔天宗 피살사건에서 對馬島에 대해서 보호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對馬島를 포용하고자하는 의지는 다음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北征詩를 次韻하여 南行을 읊은 聯句」

莫言蠻性巧	오랑캐들 천성이 교활하다 말만 말고
當示我政諭	너그러운 우리 정치를 보여야 마땅하네
漢唐制南越	한 나라도 이 법으로 남월을 제어했고
唐以服回紇	당 나라도 이 법으로 회홀을 정복했느니 ⁴⁷⁾

인용시는 永湖가 동행들과 연작시를 창작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 자신이 外夷를 제압하는 뜻을 노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永湖는 일본을 오랑캐라고 비난만 하지 않고 포용력을 보여서, 자신도 漢文帝 때의 陸賈나 唐太宗 때의 郭子儀처럼 유세로 외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에서 對馬島를 포용하면서

44) 趙曦, 『海槎日記』, 「筵話」.

45) 趙曦, 『海槎日記』 권1, 「癸未年 10月 28日(辛亥)」.

46)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 4月 26日(丁未)」.

47)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 「次北征韻詠南行聯句」.

외교적 교섭으로 사건을 해결해서 對馬島와의 관계도 적절히 유지했던 일련의 과정과 서로 일맥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다.

永湖는 傳藏이 처형되자, 崔天宗의 祭文을 작성하게 했다. 또한 사건의 시말에 대해 정리하고 조사나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전체 사건을 일단락 하고, 사건의 확대를 자제한 채 외교 관계 회복을 도모했다. 永湖가 더 이상 의혹의 규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인데, 외교적 명분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이 일어난 처음에 사세로 미루어 그것이 마주인의 소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적은 이미 형적이 없어졌고 마주인은 가리고 덮기를 일삼았지만 우리는 보복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었다. 도망한 죄인을 탐지하기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렵고 타국에서 獄情을 퍼자면 몇 달을 허비했을 터인데 다행히 나라의 위엄이 멀리 미치어 죄인을 잡아 刑典을 바르게 함이 한 달 내에 이루어졌으니 오히려 속히 이루어졌다고 할 만하다. 그 다행함이 어찌 죽은 이를 위해 설원하는 것뿐이라? 일행 상하 가운데 이를 하례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엔 끝내 석연치 못한 점이 있었다. 율문을 상고하면, 서로 다투거나 때리다가 살인함과 몰래 죽인 것은 같지 않으며, 사신 일행을 찢러 죽인 것이 보통 사람을 찢러 죽인 것과는 다르다. 필시 그 피를 만든 자와 사정을 아는 자가 있을 터이므로 일부러 이러한 뜻에서 글을 꾸며서 여러 조사관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두 護僧의 말이, '그렇게 하면 모든 조사관이 모조리 죄를 입게 되어 옥에 있는 나머지 죄수는 앞으로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有害無益하다. 만약 獄案을 본다면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웨인의 성질이 지극히 사납고 독하므로 元犯이 처단된 뒤인 지금에 거슬러 과격히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만 '여러 죄수의 문안을 베껴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만들고, 또 '元犯은 이미 처단되었고 우리에게 처형을 참관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를 江戶와 大目付[오오메즈케]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글월을 만들어 上通事 崔鳳齡을 시켜 두 護僧에게 전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죄수를 엄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여러 번 하인을 보내었다. 오늘부터 비로소 先來狀啓와 獄案別單의 초본을 만들기 시작했다.⁴⁸⁾

인용문은 永湖가 傳藏의 처형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듣고 작성된 내용이다. 永湖는 사건이 신속히 처리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傳藏과 공모하거나 사건을 은폐한 죄수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나머지 죄수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다시 확대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인이 처형된 직후에 일본의 사건 처리에 대한 謝意를 표명하고, 先來狀啓와 獄案別單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잠정적으로 元犯의 처형을 사건의 해결 시점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사건의 정리와 외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崔天宗 피살사건의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永湖는 나머지 죄수들의 放逐者 錄案을 확인하여 先來狀啓와 獄案別單을 완성한 뒤에 발송함으로써 東萊의 倭館을 통해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고, 崔天宗 피살사건과 관련된 查獄의 남은 의혹과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전체 사건을 마무리 했다.⁴⁹⁾

일부 연구에서 崔天宗 피살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永湖를 포함한 三使가 우유부단했고, 사건 해결까지 大坂에 머물러야 한다는 持久策도 龍淵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傳命儀式的 과정을 통해서 ‘조고잡’으로 불렸던 永湖의 단호한 성품과 높은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술했듯이 동래부사나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해서 대일본 실무경험이 풍부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일부 연구의 평가는 특정 인물의 역량을 부각하기 위해 三使의 역량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분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三使가 통신사행 20일 전에 교체되면서 三使와 기존에 선발된 員役 間의 유대관계가

48)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 5月 2日(癸丑):

49)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 5月 6日(丁巳):

여타 통신사행보다 부족했던 정황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개연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점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譯官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사행문학에서 역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농간을 부리거나 통역 역량이 부족해서 외교 현안에 대한 교섭에는 무능한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서 계미통신사행의 역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松穆館이나 長湍 吳大齡(1701~ ?)을 중심으로 연구가 발표되었고, 永湖의 역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연구는 정영문과⁵⁰⁾ 이혜순의⁵¹⁾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된 정도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永湖의 역관에 대한 인식을 대체로 규명했는데, 다만 논의가 소략한 편이다. 본장에서는 정영문의 논의를 수용하되, 永湖의 역관에 대한 인식을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도록 하겠다.⁵²⁾

永湖는 통신사행록에서 역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역관으로 말하면, 대개 事大交鄰 때 通情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니 국가의 需

50) 정영문은 永湖가 실무를 중시한 인물인데, 특히 崔天宗 피살사건의 해결에서 보여준 역관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관의 통역 능력이 부족한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정영문, 「朝鮮時代 對日使行文學 研究」,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216-219 참조)

51) 이혜순은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에서 역관의 역할을 통해 역관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당시 사신들은 역관을 하인처럼 대우했고, 제술관, 서기도 역관과 대결의식이 있었다고 분석했다.(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p.333-334 참조)

52) 본 장은 정영문의 논의 구조를 극복하거나 보완하는데 미흡하다. 다만, 永湖의 사행문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永湖의 역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본장을 생략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用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衣冠을 한 사람으로 나라 일에 힘쓰는데 있어 죄를 지으면 비록 법에 비추어 시행하지는 못하나, 이미 임명한 뒤에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 대하는 도리 또한 성실하고 미덥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일행 중에 사람을 보건대, 문득 모리하는 象譯이라 하고 흔히 일본 사람들과 符同한다고 의심하니, 어찌 그리도 양해하지 못함이 심한가? 지금 세상에서 勞役하는 자로 ‘利’ 한 글자를 벗어나는 자가 무릇 몇이나 되겠는가? 접대하고 일을 보는 즈음에 인정에 있어 누가 동행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않겠는가? 다만 힘이 미치지 못하고 防礙되는 일이 있어 비록 동행들의 하고 싶어 하는 바에 부응하지는 못하나 어찌 이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 符同한다 의심하고 남의 정실을 究明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스스로 일을 해내지는 못하면서 문득 남의 시비를 의논하기 좋아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⁵³⁾

永湖는 역관이 事大交鄰의 외교에서 국가 간에 通情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에서도 역관을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誠信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관의 정당한 營利를 謀利로 의심하고, 日本人과의 주선이 미숙한 것을 符同한다고 매도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역관의 입장을 代辯하기도 했다. 당시 세간의 역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일단을 지적하고, 역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永湖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永湖의 주장은 崔天宗의 피살 사건에서 역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어졌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交隣할 즈음에 국경을 나간 사신의 의사 표현이 오로지 역관의 혀에 의지하므로 당초 역관을 설치할 때 지극히 긴요하다고 여겼는데, 변괴가 있는 지금에 는 더욱 역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믿어졌다.

53) 趙曦, 『海槎日記』 권2, ‘癸未年 11月 27日(庚辰)’.

수역 崔鶴齡·李命尹은 비록 옛 名譯官처럼 사려가 많고 왜어를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사람됨이 모두 단단하였다. 일찍이 내가 동래 부사로 있을 적에 최학령은 지난 일 때문에 나에게 허물을 입었었는데, 수행원의 차출이 있자 나는 그의 허물을 모두 씻어주고 임용하였으며, 이명윤은 스스로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는 자였다.

이번 사변이 있는 뒤 나는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만약 적을 조사하여 잡지 못한다면 수역의 죄가 어떤 지경에 이르겠느냐? 너희들 또한 나라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데 이때 갚기를 도모하지 않으면 어느 때이겠느냐?” 하였다니, 두 수역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역관을 두는 것은 바로 이런 때 쓰기 위함인데, 죄인이 만약 償命되지 않는다면 소인 등은 나라의 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구나 소인 등은 다 사또의 알아주심을 받고 있으며 사또께서 소인 등을 부려 쓰신 것 또한 이런 때를 위하신 것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소홀하겠습니까? 마땅히 마음을 다해 힘써 도모하겠습니다.” 하였다.

나 또한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두 역관은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갖가지 죄를 써서 과연 獄事 조사를 성공시켰으니, 이것이 이른바 ‘지성으로 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리라.⁵⁴⁾

永湖는 역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주장 하면서, 大坂에서 발생한 崔天宗의 피살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역 崔鶴齡(?~?)과 李命尹(?~?)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永湖는 인재의 선발과 운용에 있어서 ‘疑之勿任, 任之勿疑’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을 통해서도 두 수역에게 獄事의 조사를 전임 시켰고, 결국 이들의 노력으로 元犯을 조속히 체포하여, 正法償命하는 결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역관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永湖는 倭譯의 역량과 倭學의 쇠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다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4) 趙職, 『海槎日記』 권5, ‘甲申年 5月 6日(丁巳)’.
www.kci.go.kr

양국의 말이 서로 통하는 것은 오로지 역관에게 의지하는데, 수행하는 역관 10인에 저들의 말에 달통한 자는 매우 드무니 참으로 놀랍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倭學의 생활이 요즘 와서 더욱 쓸쓸하고, 조정의 勸懲도 근래에 허술하기 때문이다. 수역 무리들이, “物名을 倭語로 적은 책은 譯院에도 있으나, 그것을 차례차례 번역해 베끼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또 저들의 방언이 혹 고쳐진 것도 있어 옛날 책을 다 신빙할 수 없으니, 요즘 왜인을 대할 때 그 오류를 바로잡아 완전한 책을 만들어 내어 익히면 방언과 물명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과 수작할 무렵에 반드시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한다. 그래서 세 사신이 상의하고 바로잡게 허락해 주어 玄啓根·劉道弘을 校正官으로 정하고 수역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는데, 완전한 책을 만들지 모르겠다.⁵⁵⁾

永湖는 수행역관 중에서 倭語에 달통한 역관이 드문 것에 우려를 표하며, 그 원인을 倭學을 공부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조정의 권징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永湖는 日本이 중국과 직접 거래하면서 倭譯의 위상과 경제적 형편이 열악해졌고, 왜역을 家學으로 계승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분석하고 우려를 표했다.⁵⁶⁾ 실제로 당시 일본은 인삼 재배에 성공하고, 중국의 비단도 조선의 왜관을 경유하지 않고 長崎[나가사키]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류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공무역이 미약해져서 倭譯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⁵⁷⁾ 永湖의 분석은 매우 정확한 진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永湖는 역관들이 倭語에 달통하지 못한 중요 원인으로 지적인 司譯院의 倭語物名冊에 대한 교정 건의를 수용해서 校正官과 監督官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서도 永湖는 외교에서 역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5) 趙曦, 『海槎日記』 권2, ‘癸未年 12月 16日(戊戌)’.
 56) 趙曦, 『海槎日記』 권2, ‘癸未年 11月 10日(癸亥)’.
 57) 鄭英文, 「朝鮮時代 對日使行文學 研究」, 송실대 박사학위논문, 2005, p.213, p.219 참조.

Ⅲ. 知識人 旅行者로서 使行 體驗에 대한 所懷

통신사는 사신이면서 또한 지식인 여행자였기 때문에, 생소한 풍속과 경물을 遭遇하게 될 경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대상에 투영하거나 비교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때 自文化 中心主義의 관점에서 상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文化 相對主義의 관점에서 상대 문화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壯遊로 명명되는 여행 자체의 抒情的 美感을 경험하기도 한다.

永湖는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朝鮮中華主義의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했고, 조선의 백성들에게 유용한 문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대규모 사절과 함께 水陸萬里를 여행하면서 風流를 숨기지 않았다. 지식인 여행자로서 여정 중에서 永湖가 노정한 소회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朝鮮中華主義에 근거한 일본 인식과 비판

조선후기 조선중화주의는 조선의 성리학적 성취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문화 중심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존 프랭클(John M. Frankl)이 조선후기를 재조명하면서 조선학자와 관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수준까지 성리학 원칙에 따라 사회정치학적 환경을 개편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⁵⁸⁾ 물론 永湖도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조선중화주의의 자장 안에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조선중화주의에 근거해서 일본을 인식하고 비판한 내용은 주로 통신사의 서기, 제술관, 역관 등과 일본의 문인들 간의 교류 양상 분석을 통해서 그 인식을 비교한 연구가 많고, 永湖와 직접 관련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것은 永湖가 일본 문사들과의 수창이나 필담을

58) 존 프랭클, 『한국문학에 나타난 외국의 의미』, 소명출판, 2008, p.90 참조.

자제했기 때문에 조선중화주의에 근거한 일본 인식과 비판은 주로 永湖가 목도한 현상의 인식과 사회에 대한 담론에 머물기 때문이다.

永湖가 조선중화주의에 근거해서 일본을 인식하고 비판한 내용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 성과로 배수영,⁵⁹⁾ 이혜순,⁶⁰⁾ 정영문,⁶¹⁾ 정은영⁶²⁾ 등이 주목된다. 선행연구는 永湖가 조선중화주의에 근거해서 성리학적 의례에 배치되는 일본의 풍습, 종교나 脫朱子學的 學問 등에 대한 비판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다양하게 분석했다. 다만 대체로 분석이 소략하고, 조선중화주의적 시각의 범주가 명확하지 못하며, 성리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에 대한 작품의 고찰도 미흡하다. 또한 조선중화주의와 대척점에 있었던 일본형화이의식의 인지 정도와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보강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사월 초하루에 大垣[오가키]에서 望闕禮를 거행하고 인하여 杜甫의 ‘每依北

59) 배수영은 일본의 불교식 풍속 및 喪葬禮에 대해서 淫祠文化로 비판했고, 일본의 학문과 문장은 ‘이단’이나 ‘소경’에 가깝다고 비판했지만, 이전의 통신사행록에 비하면 비판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분석했다.(裴修伶, 『趙曦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pp.39-55 참조)

60) 이혜순은 永湖가 일본의 풍습, 문화, 학술에 대해 攘夷 情神이 다소 약화된 것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p.246-248 참조)

61) 정영문은 永湖가 일본의 불교, 천주교, 양명학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長崎에 많은 중국 문적이 수입되고, 문풍을 추구하는 분위기는 목도하고 중화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物吾同胞 의식으로 일본에도 성리학적 예교가 실행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분석했다.(정영문, 『朝鮮時代 對日 使行文學 研究』,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200-208 참조)

62) 정은영은 永湖가 일본인을 외교의 주체로 인식했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타고난 천성은 동일하다고 인식한 것은 禮觀念에 입각한 조선중화주의가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정은영, 『조선 후기 通信使와 朝鮮中華主義』, 『국제어문』 제46집, 2009, pp.373-375 참조)

斗望京華 詩로써 세 사신과 네 文士들이 韻을 나누어 각기 오언 네 구를 지었다. 나는 따라서 각 편을 연속해서 지음.

天下相謂曰	온 천하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르기를
朝鮮小中華	조선은 그야말로 작은 중국이라 하네
爲其禮義在	예의라는 그것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故此美名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건데
使者一或墮	명색이 사신으로 한 번 아차 실수하면
是乃辱國家	이것이 바로 나라를 욕되게 하는 걸세
辭令雖不能	辭令이야 아무리 능하지 못할망정
歸囊誓無瑕	돌아가는 행장이나 깨끗하길 맹세하네 ⁶³⁾

永湖는 조선이 禮義를 보존하여 小中華로 칭송받고 있기 때문에, 사신으로서 실수하지 않고, 청렴하게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永湖는 中華의 중요한 요소로 성리학적 禮義를 언급했다. 永湖는 “만일 윤리와 綱常으로 가르치고, 禮와 義로 인도한다면, 풍기를 변화시키고 세속을 바꾸며 야만을 변화시켜 문명으로 善導하여 그 천성의 타고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⁶⁴⁾라고 하여 禮義로 인도하면 夷狄을 中華로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만 永湖는 禮義와 어긋나는 일본의 禮樂文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판적인 평가를 노정했는데, 특히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풍속과 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식을 보인다.

날짜를 배정한 발기 가운데에, 스무하룻날부터 초엿셋날까지는 關白 모친의 忌日이어서 齋戒 때문에 法事·齋戒의 일이 서로 겹친 때문에 모든 公事を 일체 폐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3년 服制는 행하지 않고서 엿새 동안 忌祭에 致齋하는 일은 이미 輕重의 분수를 잃은 것이며, 또 모친의 기제를 지내려면서 먼

63)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 ‘四月初吉在大垣行望闕禮仍以杜詩每依北斗望京華三使與四文士分韻各賦五言四句余仍續成各篇.’

64) 趙曦, 『海槎日記』 권1, ‘癸未年 10月 10日(癸巳).’

저 절에서 법사를 행하는 것은 더욱 오랑개의 풍속인 것이다.⁶⁵⁾

永湖는 關白이 불교의 예법에 따라 모친의 忌祭에 致齋하느라 公事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輕重의 분수를 잃은 것이며, 夷狄의 풍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永湖는 일본의 장례 풍습이 불교의 예에 따라 火葬한 뒤에 사찰에 神牌를 보관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무식함이 심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⁶⁶⁾ 또한 倭皇에 대해서 ‘佛單于’라고⁶⁷⁾ 표현하기도 하는 등 일본의 불교에 기반한 禮制는 中華와 거리가 먼 이적의 풍속으로 비판의식을 노정했다.

또한 당시 일본에는 西學, 陽明學, 日本古學 등도 유행하였는데, 永湖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이른바 그들의 학술이란 대개가 이단에 가깝다. 호를 仁齋라고 하는 伊藤維貞이란 자는 『童子問』이란 책을 저술하여 정·주를 혈뜬었다. 근래에 호를 徂徠 또는 護園이라 한 物雙栢, 字는 茂卿이란 자가 있는데, 비록 본받아 이을 만한 것은 없지만 그 문장은 모든 사람에게서 뛰어났다. 그는 『論語微』을 저술하여 맹자이하를 다 혈뜬고 朱子註를 僞註라 하였다. 이 物雙栢과 伊藤維貞 두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 있고 그 流派가 길다. 짐작컨대, 호를 西河라고 한 청국인 毛奇齡이 주자를 공격 배척하여 스스로 『六經原辭』를 지은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 이로 말하건대, 陽明의 術이 천하에 범람하는데 주자의 학은 조선에서만 행해진다고 할 만하다. 온갖 陰이 다 박탈한 나머지이니, 한 가닥 陽을 불드는 책임이 오로지 우리나라의 여러 선비들에게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일본의 학술은 긴긴 밤이라고 해야 옳으며 일본의 문장은 소경이라 해도 되겠으나, 그중을 취해서 말하자면 舜首座의 파가 가장 正學이라 하겠다.⁶⁸⁾

인용문을 보면, 永湖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학자인 伊藤仁齋[이토 진

65) 趙曦, 『海槎日記』 권4, ‘甲申年 2月 17日(己亥)’.

66) 趙曦, 『海槎日記』 권1, ‘癸未年 10月 10日(癸巳)’.

67)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 ‘重望倭京’.

68)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 6月 18日(戊戌)’.

사이, 1627~ 1705], 荻生徂徠[오규 소라이, 1666~1728], 藤原惺窩[후지와라 세이카, 1561~1619]와 학풍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저작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의 여러 학자들은 脫朱子學的 趨向을 보였기 때문에 永湖는 이에 대해서 이단에 가깝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舜首座는 藤原惺窩인데, 永湖가 가장 正學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藤原惺窩가 조선의 被擄人 睡隱 姜沆(1567~1618)의 성리학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永湖가 조선중화주의에 근거해서 일본의 학계를 평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永湖는 일본의 관직의 세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만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노정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江戸의 잡영으로 徐文長の 운을 씀」

侯門代襲不須材
政法威權任自裁
此是家康愚弄術
坐教邦內不生才

후문은 世襲이라 자격이 필요찮고
政法이나 威權도 마음대로 결단하네
이야말로 家康의 우롱하는 술책이라
암암리에 인제가 못 나도록 한 거네⁶⁹⁾

永湖는 여정 중에 일본의 제후 가문이 세습하면서 政法威權을 천단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는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1616]이 江戸幕府를 열면서 자신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농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조선처럼 과거제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뛰어난 文士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특히 永湖는 만나는 일본인에 대해서 주로 비판적인 평가가 많고, 일본인의 詩文 수준도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도 세습제의 폐해에서 기인한 인식으로 보인다.

69)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 『江戸雜詠用徐文長韻』

실제로 永湖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던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는 조선의 과거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한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계미통신사행 당시에 大典은 大坂에서 조선 문인들과 과거제에 대해 자세한 문답을 나눴고, 그 내용은 이후 일본식 과거제의 시행에 영향을 주었다.⁷⁰⁾

반면 일본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이나 조선 통신사 중에서 성리학적 가치를 실천한 장소에 도착하면, 시문을 통해서 그 행적을 표양했다.

『金絶河에서 東溟 金世濂의 投金詩에 차운함』

誰能誓白水	누가 백수에 맹세를 하란 말인가
塵土視金鎰	황금덩이를 한갓 흙덩이처럼 보았구려
豈味亡錢歎	돈 없는 한탄을 그 어찌 모르리오만
不若人得失	사람의 득실이 물질보다 더 커서였네
自來威生廉	자고로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는 거라
蠻兒股戰慄	왜인들도 놀라서 다리가 절로 떨렸다네 ⁷¹⁾

永湖는 회정에 金絶河[今切河, 이마기레가와]에 도착해서 1636년에 통신사 일행이 왜인이 준 금을 물에 던진 고사를 회상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지 않고 청렴함을 지켰던 조선 통신사의 행동이 왜인들이 두렵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永湖는 “후인들이 이 하수를 ‘投金河’라고 일컫는다 하니, 그 청렴한 風格은 百世의 후에도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우러러 사모할 만하였다.”⁷²⁾라며, 조선은 오래전부터 禮義廉恥같은 성리학적 가치를 지켜왔던 中華였음을 표현했다.

70) 다이텐 지음, 진재교·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 지식인 조선을 엿보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pp.40-45 참조.

71) 趙巖, 『海槎日記』, 『酬唱錄』, 『金絶河次金東溟世濂投金韻』

72) 趙巖, 『海槎日記』 권3, 『甲申年 2月 6日(戊子)』.

사행문학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문학적 소회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장소감’을 갖고 재탄생되기도 한다.⁷³⁾ 金絶河도 선대 통신사행문학의 축적으로 인해 조선성리학적 가치로 재탄생한 장소, 즉 조선 성리학으로 교화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명도 일본명 ‘今切’을 ‘금을 拒絕하다.’는 의미의 ‘金絶’로 개칭했는데,⁷⁴⁾ 조선의 지식인이 조선중화주의로 일본을 교화하고자하는 의지가 투영된 장소로 재탄생 된 것이며, 永湖도 이를 재인식한 것이다. 이외에도 永湖가 일본에서 忠誠으로 重望을 받았던 觀雪堂 朴堤上(363~418), 圃隱 鄭夢周(1337~1392) 등과 관련된 장소에서 이들의 행적을 환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일본도 일본형화이의식을 근거로 조선에 대한 우월의식이 보편화 되었고, 永湖도 그 분위기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십자 거리에는, 좌우 어귀를 대사립으로 가리고 사립 밖으로 얼굴만 내밀었으며, 다리를 건널 때에는 항구의 위아래에 구경꾼을 실은 작은 배들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잇대어서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오늘 관광한 사람들은 대개 몇 십만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떠들거나 날뛰는 형태가 없었으니, 그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⁷⁵⁾

인용문은 永湖가 江戸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으로, 당시 조선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규모

73) ‘文學地理’는 특정 지역에서 꽃핀 문학적 자산을 자연지리에 대한 관심과 연결해서 그 ‘場所感’을 고찰한다. ‘空間’은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일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場所’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이면서 공통되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장소감은 더욱 선명하게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이성형, 「廟島와 嗚呼島에 對한 文學地理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제90집, 2015, p.111)

74) 使行文學에서 기존 지명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 개칭하여 장소감을 부여한 경우로는 明清 交替期 對明 海路使行文學에서 대표적 출항지이자 귀항지인 ‘宣沙浦’를 ‘배를 돌려 무사히 귀환한 포구’라는 의미의 ‘旋槎浦’로 개칭한 사례가 있다.

75) 趙職, 『海槎日記』 권4, ‘甲申年 2月 16日(戊戌)’.

의 통신사 행렬이 지나면서 많은 구경꾼이 모이고, 이때 소란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장면이다. 그런데 구경나온 일본인들의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고, 永湖는 이를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기실 永湖는 關白이 조선통신사를 요청하는 것은 幕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임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永湖의 서술과 평가는 화려한 조선통신사 행렬과 일본 현지인의 반응에 대한 부조화를 통해 서로 자국의 문화를 우위에 두고 상대국을 멸시하는 조선중화주의와 일본형화이의식이 현실에서 가장 극명하게 구현된 장면을 보여준다. 즉 문화의 전파자라는 조선통신사의 자부심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일본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파견된 조공 행렬로 냉정하게 관망했고, 그 규모와 화려함을 통해서 일본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는 학술적 담론이나 시문수창을 통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현시 보다 더욱 냉혹하게 조선과 일본 사이의 상호인식의 불일치와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⁷⁶⁾

2. 日本 文物에 대한 受容 意志와 客觀的 認識

永湖는 일본의 풍습, 종교, 脫朱子學的 學問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과 우월감을 표명했지만, 기타 조선의 백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문물이나 일본의 변화한 도시 풍경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永湖는 통신사행 중에 고구마를 도입하거나 일본의 여러 문물에 대한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대표적 선행연구 성과로는 배수영,⁷⁷⁾ 이혜순,⁷⁸⁾ 정영문,⁷⁹⁾ 오인택,⁸⁰⁾ 노성환,⁸¹⁾ 김재승⁸²⁾ 등의 연

76)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戸 체험과 그 의미」, 『漢文學報』 제20집, 2009, p.122 참조.

77) 배수영은 永湖가 개방적인 일본관으로 일본의 실용 기술에 대해 수용과 도

구가 주목된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永湖가 통신사행 여정 중에 점차 일본의 문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도입하려는 실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永湖는 對馬島에 도착해서 고구마를 보고 즉시 종자를 釜山浦에 보내서 재배하도록 한 점을 보면 이러한 평가는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永湖의 일본 문물 인식을 實學으로 평가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永湖의 저작은 통신사행록만 현전하는데, 여기에 永湖의 실용론적인 인식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散見된다. 그러나 永湖는 기본적으로 성리학과 예학을 견지하고 陽明學이나 日本古學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노정했으며, ‘北學議’처럼 실학적인 학술 담론을

입을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조선의 경제난, 실학의 발흥, 永湖의 민생문제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裴修倫, 『趙職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pp.55-63 참조)

- 78) 이혜순은 永湖가 18세기 후반 일본의 선진 농업과 방직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노정한 것은 양이 정신의 약화이며, 永湖의 시각은 이후 실학자에게로 연결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p.248-250 참조)
- 79) 정영문은 永湖가 통신사의 情勢의 探查 임무에 따라 일본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일본의 실용적인 문물을 수용하고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정영문, 『朝鮮時代 對日使行文學 研究』,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214-216 참조)
- 80) 오인택은 고구마의 공식·비공 전래 과정을 고찰하면서, 永湖와 지식인의 고구마 전래, 재배, 전파, 호칭 과정을 공식 전래과정으로 분석했다.(오인택, 『조선 후기 고구마 전래와 정착 과정』, 『역사와 경계』 97, 2015)
- 81) 노성환은 永湖가 고구마에 대한 기대가 지대했고,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고구마의 전래는 永湖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평가했다.(노성환, 『조선통신사와 고구마의 전래』, 『동북아문화연구』 제23집, 2010)
- 82) 김재승은 永湖가 당시 조선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구황작물로 고구마를 주목하고, 통신사행 중에 고구마의 종자를 처음 도입하면서 보관법, 재배법, 증식법, 저장법 등을 충실히 보내왔기 때문에 조선에서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김재승, 『조업의 고구마 전파와 재배법 연구자』, 『趙職 研究論叢』, 2004)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永湖의 일본 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평가와 시각은 民生中心 愛民觀의 발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永湖가 對馬島에서 발견한 고구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입 노력을 살펴보자.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甘藷 또는 孝子麻라 부른다. 왜음으로 古貴麻라 하는 이것은 생김새가 山藥과 같고 무 뿌리와도 같으며 오이나 토란과도 같아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 잎은 산약 잎사귀 비슷하면서 그보다는 조금 크고 두터우며 조금 붉은색을 띠었다. 넉출 역시 산약 넉출만 한데 그 맛이 산약에 비해 조금 강하고 실로 진기가 있으며 반쯤 구운 밤맛과도 같았다. 그것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도 먹으며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다. 곡식과 섞어 죽을 쑤어도 되고 썰어서 正果로 써도 된다. 떡을 만들거나 밥에 섞거나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흉년을 지낼 밀천으로 좋을 듯하였다.

듣건대, 이는 南京에서 일본으로 들어와 일본의 육지와 여러 섬들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對馬島가 더욱 많다고 하였다. 그 심는 법은 봄에 양지 바른 곳에 심었다가 넉출이 땅위로 올라와 조금 자라면 넉출의 한두 마디를 잘라 땅에 붙여 흙을 덮어 주면 그 문힌 곳에서 알이 달리게 되는데, 알의 크기는 그 토질의 맛과 안 맛에 달렸다. 잎이 떨어지고 가을이 깊어지면 뿌리를 캐서 구덩이를 조금 깊이 파고 감저를 한 층 펴고 흙을 두어 치 덮고 다시 감저를 한 층 펴고 또 흙을 덮어 다지고 이렇게 하기를 5~6층 한 뒤에 짚을 두텁게 쌓아 그 위를 덮어 비바람을 막아 주면 썩지 않는다. 또 봄이 되면 다시 위와 같이 심는다고 한다.

지난해 左須奈[사스나] 浦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감저를 보고 두어 말을 구해서 부산진으로 보내어 종자를 삼게 하였는데, 귀로의 지금에 또 이것을 구해서 장차 東萊의 校吏輩들에게 줄 예정이다. 일행 중에서도 그것을 얻은 자가 있으니 이것들을 과연 다 살려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리기를 文益漸이 목화를 퍼뜨린 듯한다면 어찌 우리 백성에게 큰 도움이 아니겠는가. 또 동래에 심은 것이 만약 넉출을 잘 뺏는다면 제주 및 다른 섬에 재배함이 마땅할 듯하다. 듣건대, 제주의 토성은 對馬島와 많이 닮은 듯하다고 하니 그 감저가 과연 잘 번성한다면, 제주도민이 해마다 손을 벌리는 것과 羅倉의 배를 띄워 곡식을 운반하는 폐단을 거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토질이 맞는지 아직 확실하지 못하고

土産이 다 다르니 과연 그 번식이 뜻대로 될지 어찌 기필하겠는가.⁸³⁾

永湖는 對馬島에서 발견한 고구마의 명칭, 특징, 식용법, 재배 방법, 구황작물로써의 효용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고구마가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화에 비교하며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마는 중남미가 원산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필리핀 등지에 전해졌던 것이 중국의 福建省에 전해졌고, 중국의 고구마는 일본의 沖繩[오키나와]에 전해져 對馬島까지 전파되었으며, 對馬島에서 재배되었던 고구마가 永湖에 의해서 조선에 전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고구마에 대한 정보는 徐光啓(1562~1633)의 『農政全書』에 소개되어 조선의 여러 지식인에게 알려졌지만, 실제 도입과 재배의 성공은 永湖의 노력이 컸다. 永湖는 對馬島에 도착한 직후 고구마 종자 수 말을 부산에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부산진 첨사 李應燦(?~?)이 1764년 봄에 야산에서 재배에 성공하였다. 또한 永湖가 귀국시 가져온 고구마는 동래 부사 幸叟 宋文載(1711~?)에게 전달되었지만 신병으로 사직하여, 신임부사 姜必履(1713~1767)에게 인계되었고, 姜必履에 의해 부산, 제주, 남해안 도서 지방까지 널리 전파되었다.⁸⁴⁾

永湖는 통신사행이 출발하기 전부터 禁制條와⁸⁵⁾ 約束條를⁸⁶⁾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덜고 외교적 상대로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일본 문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도입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금주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흉년이

83)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 6月 18日(戊戌)'.

84) 고구마의 도입과 전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김제승, 노성환, 오인택'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85) 趙曦, 『海槎日記』, '禁制條'.

86) 趙曦, 『海槎日記』, '約束條'.

지속되는 상황에서 척박한 기후에도 잘 자라는 고구마를 구황작물로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재배와 전파에 성공하게 했다. 永湖의 고구마 도입은 그의 민생중심 문물 인식과 애민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永湖는 일본에서 조선에 비해 발전된 문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조선에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澁浦[요도우라]를 바라보니, 푸른 호수가 4면으로 둘러 있어 흰 성가퀴가 물에 떠 있으며, 숲이 울창하여 누대가 보일락말락 했다. 그리고 성 밖에 水車 두대가 있어 모양이 물레와 같은데, 물결을 따라 스스로 돌면서 물을 떠서 통에 부어 성중으로 보낸다. 보기에 매우 괴이하므로 別破陣 許圭·都訓導 卞璞을 시켜 자세히 그 제도와 모양을 보게 했다. 만일 그 제작 방법을 옮겨다가 우리나라에 사용한다면, 눈에 물을 대기에 유리하겠는데 두 사람이 꼭 성공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⁸⁷⁾

永湖는 水車 2대가 스스로 돌면서 城中으로 물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許圭(?~?)와 述齋 卞璞(?~?)에게 제도와 모양을 조사하게 했다. 그리고 조선에 도입할 경우 눈에 물대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밝혀서 민생중심 애민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永湖의 인식은 일본에서 제방을 쌓을 때에 ‘竹夫人様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계미통신사행 당시 조선은 수리시설의 정비·확대로 18세기 말에는 전국에 저수지가 약 6000개에 달할 정도로⁸⁸⁾ 제방공사도 한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水車, 竹夫人様子 등에 대한 관심도 고구마에 대한 관심처럼 永湖의 민생중심 애민관의 자연스러운 발로로 이해된다.

87) 趙曦, 『海槎日記』 권3, ‘甲申年 1月 27日(己卯)’.

88)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97, p.331.

또한 永湖는 일본의 변화한 도시 풍경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江戸의 변화한 풍경을 노래한 작품을 살펴보자.

「江戸의 잡영으로 徐文長의 운을 씀」

列肆綾羅眩黑藍	각 상점의 흑색·남색 비단 눈부시어
蠻娘裁作上春衫	왜의 아가씨들 가져다 봄옷을 재단하네
蘭陀貢帕多新品	난타에서 들여온 물건 신품이 펍 많으니
第五橋邊繫八帆	제오교 다리가에 여덟 척 배가 매였네 ⁸⁹⁾

상련에서는 江戸의 늘어선 市肆에 중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비단이 진열되었고, 그 비단으로 春衣를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하련에서 蘭陀는 阿蘭陀로 네덜란드인데, 서양에서 수입된 新品과 정박된 8척의 西洋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永湖의 통신사행 당시에 일본은 長崎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에 나서며 많은 중국 비단을 수입하였고, 또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서양과의 교역도 이루어져 많은 문물이 수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중심도시인 江戸에 많은 물산이 집중되며 다채롭고 변화한 시사의 풍경이 그려졌던 것이다.

선창에서 관소까지 거리가 거의 5리나 되었는데 골목길이 먹줄을 통긴 듯하고, 휘어지는 곳마다 다 방정하여 형상이 ‘井’ 자 같았다. 곧게 뻗은 골목을 井이라 하고 횡으로 뻗은 골목을 通이라고 하는데 몇 정·몇 통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사이마다 里門을 설치하고 이문에는 禁火將을 배치하였는데, 머리에 쓴 것이 우리나라의 군인이 쓰는 가죽병거지와 같았으며, 몸에는 범의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 그것이 일본의 갑옷과 투구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鐵杖을 가지고 있는데 철장의 머리에는 고리가 달려서 땅에 부딪치면 소리가 흡사 호령하는 듯하였다. 앞길에도 역시 이러하다고 하였다. 本願寺[혼간지]에

89) 趙巖, 『海槎日記』, 「酬唱錄」, 『江戸雜詠用徐文長韻』

들어가 쉬었다. 이 절은 몹시 웅장 화려하여 무려 몇천 칸이나 되었으니, 지나 오며 유숙하던 관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⁹⁰⁾

永湖가 大坂에 도착하여 관소까지 方正하게 잘 정돈된 거리의 풍경과 관소인 本願寺의 웅장하고 화려한 규모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永湖는 여정 중에 일본의 변화한 도시를 경유하면서 잘 정돈된 시가 풍경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에 대해서도 간혹 불교에 경도되었고 지나치게 사치스럽다는 비판의식을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대체로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처럼 永湖의 일본 문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은 조선 중화주의의 우월의식으로 일본을 멸시했던 태도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조선통신사의 조선중화주의는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과 함께 임진왜란의 적개심이 공존하면서, 굴절된 일본관을 노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永湖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지식인이었고, 재미통신사행 무렵은 임진왜란의 상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문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異國風光 遊覽의 抒情的 美感

통신사행은 500여명의 인원과 수로와 육로를 경유하는 만리의 노정, 왕복 10여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문인들은 이를 壯遊로 인식하고, 四方志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여행 중에 이국적 풍경을 접하거나 고단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서정적 소회를 노정하게 된다.

90) 趙曦, 『海槎日記』 권3, ‘甲申年 1月 20日(壬申)’.
www.kei.go.kr

永湖가 일본의 풍광을 유람하면서 느꼈던 서정적 미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조선과 일본의 산수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이 되었다. 대표적 연구로 황소연,⁹¹⁾ 정은영,⁹²⁾ 임채명,⁹³⁾ 정응수⁹⁴⁾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永湖와 다른 문사와의 일본 풍광 인식을 비교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거나, 일본의 富士山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日本觀의 변화나 조선의 사상적 경향의 변화에서 그 의미를 고찰했다. 다만 주로 富士山을 중심으로 풍광 인식 이면의 사상사적 가치의 도출에 집중하면서, 일본의 여타 풍광이나 절경 유람을 통해서 노정된 서정적 미감의 고찰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永湖가 여정 중에 일본에서 목도한 절경, 수로 노정에서 느꼈던 위협한 순간, 동료들과의 시문 수창 등을 통해서 느꼈던 감흥 등의 서정적 미감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91) 황소연은 永湖와 靑泉 申維翰(1681~1752)의 일본 園林과 환경 인식 양상을 비교하여, 永湖는 靑泉과 대조적으로 조선의 원림과 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객관적 관찰자의 태도로 일본을 평가하려 했고, 일본의 생태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의 부조화에 대한 조정도 후인의 일로 남겨두었다고 분석했다.(황소연, 「조선통신사가 본 일본의 원림(園林)과 환경」, 『일어일문학연구』, 78(2), 2011)

92) 정은영은 赤間關에 대한 永湖와 秋月의 평가를 비교하면서, 永湖는 통신사행에서만 유람할 수 있는 일본의 절경보다 소박해도 조선의 풍광을 더 뛰어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담론』, 경진출판, 2015, pp.102-103 참조)

93) 임채명은 조선통신사의 富士山[후지야마]과 정상의 白雪에 대한 인식의 변모를 고찰하면서, 永湖가 難解한 物理로 인식했지만 富士山 정상의 白雪을 눈으로 확신한 것은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인식 태도가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임채명, 「朝鮮 文士의 詩文을 통해 본 富士山 認識의 變貌 樣相」, 『동방한문학』 36, 2008)

94) 정응수는 永湖를 포함한 계미통신사가 富士山을 단순한 자연 경관으로 인식했던 것은 그 인식의 배경에 실학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富士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조선의 사상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했다.(정응수, 「조선통신사가 바라본 후지산(富士山)(2)」, 『日本文化學報』 32, 2007)

산세가 구불구불하여, 남쪽 이동에서부터 赤間關[아카마가세키]까지 거의 5백~6백 리나 되는데, 그 사이에 또 州郡이 몇이나 되고 명승지가 몇이나 되는지 모른다. 사방 주위가 수천 리 훨씬 넘으니 일본의 지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아마 멀리 바라보아 환히 통하기로는 여기보다 나은 곳이 없을 것이다. 倭船 백여 척이 赤間關으로부터 바람을 받아 불룩한 돛을 앞으로 내밀고 잠깐 사이에 수백 리를 지나가는데, 그때 저녁놀이 산으로 돌아가고 바닷물은 거울처럼 맑아서 또 한 경치를 더 보탠다. 畫師로 하여금 그리게 하였는데, 과연 이眞景을 그려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설사 진경을 그려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시원한 곳에 이르러는 아마 절반도 그려내지 못할 것이다.⁹⁵⁾

永湖는 藍島에 머물면서 일행과 함께 관사의 뒷산에 올라 저녁노을지는 바다의 풍경을 조망했는데, 당시의 그림 같은 풍경을 畫師를 통해 그려내게 했다. 永湖는 눈 앞의 眞境을 화폭에 담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심중의 豁然處는 절반도 그려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당시 절경에서 느낀 감동을 숨기지 않았다. 永湖는 일본과의 화친을 도모하는 통신사행이지만 그 여정 중에서 많은 장관을 만났다고 술회했는데, 藍島에서의 풍경도 장관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壯遊를 즐기는 방법 중에서 시문의 수창은 중요하 요소였다. 永湖의 통신사행록에는 동료들과 수창한 원운시와 차운시를 모아 酬唱錄으로 첨부했는데, 약 300여수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이를 통해서 永湖는 수시로 동료들과 수창을 하면서 회포를 풀거나 객수를 달랬던 것을 알 수 있다.

「壹岐島[이키노시마]에서 바다를 건널 적에 鷗木이 꺾어져서 거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가 안정을 얻었다. 그래서 製述官인 여러 文士들이 기해년 통신사 黃鷺汀의 韻자를 뽑아내어 기쁨을 기록하고 인하여 차례로 화답함」

臣心臣命國書懸

신의 마음 신의 몸을 국서에 매달고서

95) 趙曦, 『海槎日記』 권2, 癸未年 12月 21日(癸卯).

一任安危大海邊
 鷗折蒼黃無奈地
 虹成紫赤忽由天
 千金四字憑今日
 九死一生知是年
 寄語吾儕存至誠
 風波世路益懍然

안위를 한바다에 맡기어 버렸다오
 鷗木 꺾여 허둥지둥 어쩔 줄 몰랐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붉은 무지개 나타났네
 천금 같은 네 글자는 오늘의 信憑이라
 구사일생 이때를 두고 난 말이로세
 벗님들에게 말을 전해 경계심 갖게 하노니
 세상길의 풍파란 건 더욱더 두렵다오⁹⁶⁾

永湖가 壹岐島를 건널 때에 鷗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난파의 위기가 있었는데, 홀연 무지개가 나타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천금 같은 네 글자는 英祖가 사행을 무사히 다녀오라며 했던 ‘好行好來’라는 인사말을 말하는데,⁹⁷⁾ 이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임금에게 은혜를 돌린 뒤에, 世路의 風波가 더 위험하니 항상 경계하라고 호기롭게 시를 마무리 했다.

永湖는 일본이라는 외국을 여행하면서 유람한 산수를 자신이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산수나, 조선에서 직접 유람했던 산수와 서로 비교하면서 그 우열이나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다.

「望湖樓에 오름」

上上棧道上上巒
 望湖亭出白雲端
 針峯關野千疇正
 琶水爲池一曲寬
 縱與岳樓夷夏別

잔도에 오르고 올라 상상봉에 다 오르니
 望湖樓 좋은 정자 구름 끝에 솟았구려
 침봉이 들을 열어 논밭이 반듯하고
 파수가 못이 되어 한 구비가 넓적하네
 저 岳陽樓와는 비록 이·하가 구별되지만

96) 趙巖, 『海槎日記』, 「酬唱錄」, ‘壹岐島渡海時, 鷗木折傷, 幾危獲安. 製述官諸文士, 拈己亥信使黃鸞汀韻, 志喜仍次以和.’

97) 趙巖, 『海槎日記』, 「酬唱錄」, ‘壹岐島渡海時, 鷗木折傷, 幾危獲安. 製述官諸文士, 拈己亥信使黃鸞汀韻, 志喜仍次以和.’ “辭階時, 上親書好往好來四字以下, 故第五句及之.”

可將韜浦弟兄看
名區久屬源平界
天意難諶又永歎

도포에다 비한다면 누가 낫다고 하기 어렵겠네
이러한 명승지가 원·평의 땅에 붙었으니
하느님 뜻 알 수 없어 또 길이 탄식하네⁹⁸⁾

永湖 일행은 今須[이마스]에서 점심을 먹고 摺針嶺[스리하리레이]의 望湖樓에 올랐는데, 摺針嶺과 琵琶湖[비와코]가 어우러진 절경을 조망하니, 호수 중간에 竹生[지쿠부]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 것이 마치 洞庭湖의 君山이 연상되어 望湖樓를 岳陽樓와 비교했다. 다만 洞庭湖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그 절경은 韜浦[도모노우라]에는 비견될 만 하다고 평가하며, 永湖가 직접 목도했던 경험을 대입시켰다. 尾聯에서는 이러한 명승지가 일본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탄식하고 있다.

永湖는 望湖樓의 풍경을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했던 洞庭湖나 직접 목도한 韜浦와 비교하여 직간접 경험을 동원해서 그 절경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永湖는 일기를 통해서도 망호루를 재차 방문하면서 그 절경에 감탄하여 날이 저무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고 밝히고, 三使臣이 절구 1수씩 지어 제술관에게 수창하도록 했다.⁹⁹⁾

이 외에도 永湖는 일본의 대표 명산인 富士山을 白頭山이나 金剛山과 비교하기도 하였고, 駿河州[스루가슈]의 靑見寺[세이켄지]를 洛山寺에 비교하여 그 우열을 비교하면서 抒情的 美感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는 적극적으로 우열을 비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산수를 통해서 조선의 산수를 회상하는 표현으로, ‘信美非吾土’¹⁰⁰⁾처럼 紀行文學에서 즐겨 사용되는 鄉愁感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98) 趙曦, 『海槎日記』, 「酬唱錄」, 「登望湖樓」

99)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 4月 1日(壬午):’

100) 漢의 王粲이 고향을 떠나 荊州의 劉表에게 의탁했을 때에 지은 ‘登樓賦’에 “비록 진실로 아름답지만 내 고향은 아니니, 어찌 잠시라도 머무르랴. [雖信美而非吾土兮, 曾何足以少留]”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후 ‘信美非吾土’는 많은 문인들이 여행이나 타향살이 중에 鄉愁感을 표현하는 관용구로 즐겨 사용됐다.

IV. 結論

이상으로 永湖의 通信使 使行文學에 대한 二元的 文學世界를 분석하고 세부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본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고의 의의를 간략히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通信使의 正使로서 使命 遂行에 대한 所懷로 먼저 永湖가 外交儀典에 대한 再認識과 國格의 正立을 위한 노력과 소회를 살펴보았다. 永湖는 통신사의 정사로서 외교의전에 대해서 ‘自侮의 방지’와 ‘國格의 정립’이라는 가치를 근간으로 日供이나 禮單의 분급 같은 사소한 외교의전도 선례를 참고하여 자세히 기록해서 후대 통신사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조선의 禁酒令을 준수하도록 일본의 宴享儀典을 변경했으며, 傳命儀式에 대한 비판과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永湖의 傳命儀式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단순한 자괴감의 토로가 아니고, 名實이 불일치하는 일본의 二元的 통치체제와 역사적 사실, 외교현장에서의 냉철한 정황 분석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의 國格 正立을 위해 현실적이고 명분론적인 주장이며, 정사로서의 책임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永湖가 崔天宗 피살사건에 대한 대처와 외교적 해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崔天宗 피살사건은 무고한 인명이 피살된 형사적 사건이면서, 일본의 護行員이 조선의 使行員을 살해한 외교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성격을 간파한 永湖는 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爭桑의 故事’를 상기하고, 외교적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선이 사건의 해결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고 일본의 사건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범인인 鈴木傳藏의 처형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되었으며, 朝日 間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서 永湖가 사행의 총책임자로서 위기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결단력과 논리적이고 치밀

한 업무 능력이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永湖가 역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永湖는 외교에서 역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는데, 崔天宗 피살사건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이를 재확인했다. 또한 倭譯의 역량과 倭學의 쇠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知識人 旅行者로서 使行 體驗에 대한 所懷로 먼저 永湖가 朝鮮中華主意에 근거한 일본 인식과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永湖는 지식인 여행가로서 조선중화주의적 시각으로 일본의 풍습, 종교, 학문 등에 대해서 夷狄의 풍속이나 異端으로 규정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노정하였다. 반면 성리학적 禮樂文物의 제도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은 중화임을 재확인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노정하였다. 요컨대 조선이 일본보다 문명국이라는 대타적 자아인식과 평가를 노정한 것이다. 다만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인식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永湖가 日本 文物에 대한 受容 意志와 客觀的 認識을 노정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永湖는 民生中心 愛民觀을 견지해서 조선의 백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도입의지를 보였다. 당시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황작물로 고구마에 주목하여 전파에 성공했고, 수리시설과 제방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水車, 竹夫人樣子 등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을 주목해서 수용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임진왜란의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한 도시나 정돈된 시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永湖가 일본의 風光을 遊覽하면서 抒情的 美感을 노정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永湖는 일본의 절경을 만나면 그 서정적 미감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하였고, 일본의 문사와는 詩文 酬唱이나 筆談을 자제했지만, 동료들과는 적극적인 酬唱을 통해 壯遊의 興趣를 체고하였다. 또한 永湖는 일본과 조선의 산수의 우열을 비교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일본의 산수를 통해서 조선의 산수를 회상하는 표현으로, ‘信美非吾土’처럼 紀行文學에서 즐겨 사용되는 鄉愁感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永湖의 통신사행록은 대일본 통신사행이라는 여행을 매개로 완성된 기행문학 작품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행문학 작품이 그러하듯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문물, 풍습 등을 경험한 소회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다만 개인적인 여행이 아닌 외교목적의 여행이기 때문에 조선 지식인으로서의 소회와 더불어 통신사행의 책임자로서의 소회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사행문학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永湖의 통신사행록에는 대일본 통신사행을 통해 일본이라는 他者를 인식하고 내면화함에 있어서 正使라는 公的인 自我認識과 조선의 지식인이라는 私的인 自我認識이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永湖의 통신사행록에 대한 분석 관점은 사행문학 작품에 대한 문예적 접근과 비평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현재 많이 수집되어 公刊된 여타 사행문학 작품에 대해서 천편일률성이라는 비평을 극복하고 그 문학성을 도출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분석 형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 형식을 제안하고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永湖의 의식세계에 대한 분석에 치중되었고, 작품 자체의 문학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점은 본고의 한계이다.

<參考 文獻>

- 南 玉, 『日觀記』
趙 曦, 『海槎日記』(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民族文化推進會, 『國譯 海行摠載』VII, 探求堂, 1975.
구지현, 「癸未(1763) 通信使 使行文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漢文學報』 20, 우리한문학회, 2009.
김의환, 「조엄이 본 18세기 후반기의 일본사회와 조일관계」, 『韓國學論叢』, 玄岩申國柱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編, 1985.
김재승, 「조엄의 고구마 전파와 재배법 연구자」, 『趙曦研究論叢』, 원주시, 2004.
노성환, 「조선통신사와 고구마의 전래」, 『동북아문화연구』 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민덕기, 「최천중 살해사건으로 본 18세기 중반 통신사의 對馬島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1, 한일관계사학회, 2004.
裴修伶, 「趙曦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97.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景仁文化社, 2006.
신명숙, 「『日東壯遊歌』에 대한 비판적 성찰」, 『韓民族語文學』 59, 한민족어문학회, 2009.
안대수, 「崔天宗 殺害事件을 소재로 한 實錄體 小說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계미통신사의 사건·사고의 진상과 실록체 소설의 창작 동기」, 『日語日文學研究』 79,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오영교, 「영호 조엄의 생애와 사상」, 『趙曦研究論叢』, 원주시, 2004.
오인택, 「조선후기 고구마 전래와 정착 과정」,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2015.

- 이성형,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廟島와 鳴呼島에 對한 文學地理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 李炫周, 「1763년 癸未通信使 使行文學의 서술방식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혜순, 「18세기 후반 조선통신사의 일본인식」, 『동방고전문학연구』, 학산 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총, 1990.
- _____,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이홍식, 「1763 재미통신사행과 한일 관계의 변화 탐색」,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 임채명, 「朝鮮 文士의 詩文을 통해 본 富士山 認識의 變貌 樣相」,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정영문, 「朝鮮時代 對日使行文學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정은영, 「조선 후기 通信使와 朝鮮中華主義」,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 _____,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담론』, 경진출판, 2015.
- 정응수, 「조선통신사가 바라본 후지산(富士山)(2)」, 『日本文化學報』 32,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 하우봉, 「조선시대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朝鮮時代史學報』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 황소연, 「조선통신사가 본 일본의 원림과 환경」, 『일어일문학연구』 78(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 다이텐 지음, 진재교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 지식인 조선을 엿보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 존 플랭클, 『한국문학에 나타난 외국의 의미』, 소명출판, 2008.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Envoy Travelogue of Youngho(永湖) Cho-Eom(趙曦) - Focused on
analysis of dualistic literature world / Lee Soong-hyung**

In this study, dualistic literature world for envoy travelogue of Youngho(永湖) Cho-Eom(趙曦: 1719-1777) was analyzed and its detailed contents were considered.

As cherished thought for envoy mission as a leader of envoy, first, re-recognition for diplomatic protocol and an effort of establishing national dignity were observed. Young ho(永湖) recorded even minor diplomatic protocol in detail based on a value of 'preventing an act of insult against oneself' and 'establishing national dignity', changed diplomatic protocol for banquet of Japan so that drinking prohibition order(禁酒令) of Choseon(朝鮮) would be observed and emphasized rationale for criticism and change of credential delivery ceremony(傳命儀式).

As a next step, Youngho(永湖) considered diplomatic response to be proper by reflecting 'old incident of war breakout by mulberry leaf dispute(爭桑의 故事)' right after the case. Resultantly, right from occurrence of the case to execution of Tsuzuki Denjo[鈴木傳藏], the criminal, the case was resolved relatively quickly but it did not spread to diplomatic problem between Choseon(朝鮮) and Japan.

Finally, when observing the contents of emphasizing role and importance of interpreter by Youngho(永湖), Youngho(永湖) reconfirmed role and importance of an interpreter in a diplomacy through resolution process of Choi, Cheon-Jong(崔天宗) murder case, expressed concern over decline of Japanese interpreter and Japanology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for solving such problem.

As a cherished thought for envoy travel experience as an intellectual traveller, recognition and criticism of Japan by Youngho(永湖) based on Choseon Zhonghua Ideology(朝鮮中華主義) were observed. It seems that Youngho(永湖) exposed critical perspective by regulating Japanese custom, religion and study as uncivilized custom or heresy based on a viewpoint of Choseon Zhonghua Ideology(朝鮮中華主義) but he also read unnatural recognition of Japan against Choseon(朝鮮). As a next step, in acceptance will

* Teacher of Dongan High School / great-one@hanmail.net

and objective recognition for Japanese culture, Youngho(永湖) showed positive concern and introduction will for new Japanese culture that may be helpful to the people of Choseon(朝鮮) by sticking to public welfare oriented merciful policy and this effect was confirmed by acceptance will of sweet potato propagation, water mill(水車), 'Jookbuin shaped tool(竹夫人樣子)'. In addition, he also showed a viewpoint of an objective and positive observer for bustling, well-arranged Japanese cities.

Finally, in contents of exposing lyrical aesthetic sense while travelling magnificent Japanese scenery, Youngho(永湖) depicted such sense in detail and aroused excitement of Jangyu(壯遊) through positive exchange with colleagues. In addition, Youngho(永湖) exposed nostalgia by comparing landscape excellence of Japan with that of Choseon(朝鮮) as well.

【Key words】 Youngho(永湖) Cho-Eum(趙巖), Envoy travelogue, credential delivery ceremony(傳命意識), Choi, Cheon-Jong(崔天宗), interpreter, Choseon Zhonghua Ideology(朝鮮中華主義), Japanese style Hui consciousness(日本型華夷意識), sweet potato, Jangyu(壯遊)

투고일 : 11월 16일, 심사완료일 : 12월 4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